

신앙 성장 시리즈 26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Jesus' Parables About Money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간사/2

서문/4

1. 이재(理財)의 예술	9
2.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1
마음을 짚어보시는 예수님	11
문제를 거론하신 예수님	16
예수님께서 주신 대안	21
3. 지혜로운 관리인의 비유.....	28
예수께서 비유하신 지혜로운 관리인	28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제자의 길	35
4. 불평하는 품꾼들의 비유.....	46
보상 약속 : 제자 된 축복	48
제자 되는 동기	55



돈은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절대로 필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돈은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에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의 다소를 막론하고 언젠가 한 번은 돈에 대한 최고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부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를 창출하여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 재정 상담자들의 직업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최고 인기 직업은 회계사를 겸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정적 흐름

을 파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회사나 기관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참된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돈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돈에 대한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면 건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손에 맡겨 주시는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질을 받아 가장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한국 오늘의양식사

자문

재정 계획 자문은 한창 인기 상승 중인 직업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재정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수님이 돈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신 지혜가 부족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앞날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창조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디스커버리하우스출판사의 작가 인릭은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세 가지를 발췌하여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세 방법과 노후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

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거룩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혜를 지닌 이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디오 성경 선교회 회장
마틴 드 한 2세



1. 이재(理財)의 예술

1980년대는 아마도 미국 역사에서 여피족의 시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전 시대의 구호는 “당신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였는데 여피 시대의 구호는 “당신은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야 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전반부는 구매와 소비가 특징이었습니다. 비록 후반부에는 경제 침체로 인하여 “더”에서 “안정”으로 강조점이 바뀌었지만 물질주의가 군림하였고 이는 단지 여피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도에 실시된 그 당시 미국 청소년에 대한 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극심한 물질주의에 빠져 그 어느 시대보다도 돈을 버는데 우선순위 1위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이러한 충동을 “건강, 부(富) 그리고 번영”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마피아가 최고급 승용차 링컨컨티넨탈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들이 그러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베이붐 세대인 여피족들이 소유하는 방법을 세련되게 추구했지만 “소유추구”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약속하며 유혹하고 소유와 지위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왔습니다. 직업적인 성공, 재정적인 안정, 개인의 번영은 모두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점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적의 영토로 넘어갑니다.



2.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주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일단의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16: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성공하여 얻은 열매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을 싫어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추신경계를 짚어보기 위해 아주 힘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눅12:13-21) 우리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엄중한 질문과 대면하도록 내몰고 계십니다.

마음을 짚어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에게 끌린 수 많은 군중들이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동안에 무리 수 만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눅12:1)”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적들은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기 (눅11:53-54)” 시작했습니다.

모인 군중 중 한 사람은 그러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속과 관계된 가족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두 형제 중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법률에 따라 그의 형이 유언대로 유산 배분을 관리했고 아마도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처럼 혼자서 고스란히 다 물려받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생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원하는대로 자신이 쓰고 싶은 만큼의 자기 돈을 원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인된 랍비에게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동생은 그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눅 12:13)” 라고 자기 뜻을 말했습니다. 주님께 판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편을 들어서 형과 싸우는데 쓸 공격 수단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 그는 예수님을 돈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눅 12:14)” 라는 대답으로 그 역할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법적으로 그런 송사에 간여할 공인 랍비 자격이 없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런 일이 그분의 성스러운 임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자신이 쓴 책에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러 왔지 재물을 인간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인가가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한다.” 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설혹 동생이 그의 형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했을지라도 그의 권리를 찾는 것이 그를 위해서는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문제가 개재되어 있

고 상속 재산을 사기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그 위험이란 그 사나이로부터 돌아서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눅 12:15)”

첫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는 주님의 메시지를 내온사인으로 만듭시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한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교활한 죄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떤 죄들은 명료하고 인지 가능하므로 믿는 사람들은 재빨리 그 것을 악이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힐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을 소름끼치는 죄악으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예수님께서서 간음이나 술 취함에 대해서는 탐욕에 대해서처럼 극적인 용어로 경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는 “더 가지려는 애

타는 욕구”입니다. 더 많은 것을 꼭 잡으려는 것, 획득하려는 욕망이란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과 동반되는 지족(知足)과는 아주 반대입니다 (딤펴전 6:6). 누구인가가 거부 록펠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1달러 더!”였습니다. 탐욕의 괴수에게는 배부름이 결코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탐욕이란 그 크기가 문제이지 그 태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극빈자가 탐욕스러울 수도 있고 최고의 부자가 탐욕을 떨쳐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혐의로 감옥에 갔고 벌금 1억 달러를 낸 국제적 기업 사냥꾼 이반 보에스키는 몇 년 전에는 월 스트리트에서 만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한 명문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탐욕은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탐욕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건강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탐욕스러워질 수가

있고 그러고서도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뉴스위크지 1986년 12월 1일자는 다음과 같이 평을 달았습니다. “그날을 돌아보니 가장 이상했던 것은 이반 보에스키가가 경영대학 졸업식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연설이 폭소와 갈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탐욕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골3:5). 주님께서서는 확신에 차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눅 12: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삶을 주십니다.

문제를 거론하신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관념적인 경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는 당시 1세기 시대의 여피족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눅 12:16-21). :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

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는 부를 낳고는 합니다. 그 부자의 부는 그로 하여금 풍작의 땅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의 부 자체, 그가 부를 얻고 늘린 방법은 굳이 비난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선택하였는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으로는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확해집니다. 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부자의 인생관을 다음과 같은 세월이 흘러도 반복되어 읊조려지는 몇몇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누가 그렇게 해줄 것인가?”

“소유에 성공하면 내 개인으로서 성공한 것이다.”

“창고가 클수록 (자동차, 집) 인생도 좋아진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즐거움과 안정감은 살수가 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거품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뿐만 아니라 탐욕에 바탕을 둔 모든 삶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눅 12:20)”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의 진단은 그의 신실함으로 엄중하였고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이란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과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택하고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말에 “나”, “나의”라는 단어가 열 한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할 수가 있고 부요함이 그 지배 능력을 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하신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눅12:20)”라는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는 현재에 대한 아무런 지배력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찾으리니”라는 단어는 채무관련 상거래 용어였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 와서야 부자는 모든 사람이 조만간에 배우게 될 진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지상에서 존재하도록 삶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분은 빛

을 값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래에 대해서도 지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눅 12:20)?”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뉘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전2:18-19) ?”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라 빈자였습니다. 진실을 접한 순간에 부요한 농부는 그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는 지나가고 말 것에 투자했지 영원한 것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을 것을 평가해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떠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가 지은 창고, 그가 지배하던 사람들, 그가 얻었던 특권들 모두를 말입니다. 죽음은 그를 발가벗기고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눅12:21)”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며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가? 그 분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꼬리표를 붙일까?” 짐 엘리엇가 한 다음의 이야기는 깊이 새길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식하기 바라는 다른 형태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에서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혹은 “만족할 수 없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소유의 힘은 그 것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어리석음에 마주칩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 우리가 부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으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안

누가는 22절에서 24절까지의 구절이 무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걱정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악 중 하나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이란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모든 소유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내 머리로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다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잠언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 12:25).”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인가가 관찰했듯이 사람은 자기가 먹은 것보다는 자기를 먹는 것들로 인하여 궤양에 더 잘 걸립니다. 근심은 또한 평온한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영적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는 걱정이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2:22-24). 이 말씀은 인생이 자신의 소유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인생은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새들을 돌보심보다 훨씬 더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은 어리석게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임을 잊게 만듭니다.

둘째로 걱정이란 무익한 것입니다 (눅 12:25-28). 걱정은 수명을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가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부정하고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은 경솔하게 굴지 말고 마음 가득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바뀔 수 없는 것들이고 (과거), 지배할 수 없는 것들이며 (현재),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들

이라고 (미래)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셋째로 걱정이란 불신앙입니다 (눅 12:29-31). 육체적인, 인간적인 소용에 마음을 빼앗기면 궁극적으로 불신앙의 포로가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정말로 진리라면 우리의 삶은 비기독교인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저서 ‘오늘도 경주하라’에서 “우리의 모든 초조감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을 하여서 생깁니다.”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잘못된 이해의 산물입니다. 그 분은 아시고, 보살피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식이 우리가 삶을 쳐다보는 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걱정거리가 정해집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의로운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그만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차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영원히 관심을 둘 가치가 있습니다.

걱정과 공포는 삼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공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눅 12:32-34).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정적 자원들과 개인적인 소유물들에 대해서 과감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것들을 꼭 붙들거나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그들을 버려야 합니다. 실로 우리의 보물을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것들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을 쫓아가므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구딩은 그의 저서 ‘누가에 의하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현금과 그 이자를 하늘나라에 투자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늘나라를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하늘나라에 투자할 준비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닌 보물의 량이 아니라 그 것이 있는 위치입니다. 부자의 보물은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정말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주위에 그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지기 위한 것이고 영원무궁할 하늘나라에 보물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디엘 무디가 옛날에 말했습니다. “그다지 오래 이야기 해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15분 대화하면 당신은 그들의 보물이 땅위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유념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치하지 않고 한계를 두면 우리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정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확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폐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는 구호가 박혀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런데 우리는 우리 돈에 그려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우리 돈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떤 친구가 돈 쓸데는 마구 불어나고 재정은 점점 말라가자 말했습니다. “우리가 망해간다는 것을 알 때 ‘아저씨’라고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3. 지혜로운 관리인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들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는 그 것들이 지니는 충격적인 가치입니다. 그 것들은 허를 찌르며 깜짝 놀라게 합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그렇습니다 (눅 16:1-13). 이 이야기는 해석자들 사이에 격론과 찬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우리를 제자된 삶의 핵심적 진리와 대면하게 합니다. 이 비유는 1절에서 8절까지이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가르치려 의도하는 원리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신 지혜로운 관리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알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말 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 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눅 16:1-8)”

이 비유는 우리를 금융과 채무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관리인은 청지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피고용인으로

서 (아마도 부채지주의) 주인의 사업과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임무는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금을 유용하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는 돈을 써버렸고 그에 대한 신의를 깨뜨렸고 주인의 소유물을 잘못 다루었습니다. 그의 부실에 대한 소식이 주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태만 혐의에 직면하자 청지기는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용서받지 못할 하인의 비유에는 (마 18)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은 고대 세계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현사회처럼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는 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눅 16:2)”라고 말한 후 청지기의 속내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시대의 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대개는 책상을 즉시 비우라고 말하거나 이미 책상을 비워놓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인에게는 기회의 창구가 주어졌습니다.

그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아직은 확정되었거나 공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는 운신의 폭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의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육체노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약했고 빌어먹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육체노동을 하거나 빌어먹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등을 긁어주면 네 등을 긁어줄께”라는 속담을 알았습니다. 몇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아마도 도움 받은 이들이 그에게서 은혜를 입으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주인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여 증서를 고쳤습니다. 어쨌든 그는 구좌를 관리했었고 그의 주인을 대리할 법적 지위를 그 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얼마 빚졌습니까?” “올리브기름 백 말입니다.”

“자, 여기 옛날 차용증입니다. 다시 쓰십시오. 오십 말이라고 쓰십시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 “얼마 빚졌습니까?” “밀 백 석입니다.” “여기에 오십 석이라고 쓰십시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확신할 만큼 우리는 1세기의 상거래 관행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논평자들은 그 사업이 부정으로 가득 차서 관리인이 주인을 속이는데 이 사람들을 연루시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도 부자와 상거래를 계속하리라는 추정을 하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거래가 치밀하고 준합법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의 사업가들은 동료 유대인에게는 이자를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점이 상거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자주 쓰였습니다. 돈을 끌 때 이자를 명기한 차용증을 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원금, 이자, 중개 수수료를 합한 단 한 금액만 보입니

다. 금액은 종종 돈보다는 기름, 밀 등의 물건으로 명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었다면 청지기는 아마도 이자를 유보하여 차용증의 액면가를 낮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과는 유대 율법으로 합법적이지 아니었으므로 주인으로서 청지기에 맞설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은 그 이유를 의심은 했겠지만 즐겁게 그 제안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꼼짝 못하게 효과적으로 묶었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면서 그를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할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비유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눅 16:8)”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행위로 인해서 기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감동했다는 말은 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행위로 인해서 기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감동했다는 말은 했습니다.

관리인은 고용인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주인이 관리인의 부정직을 칭찬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운동선수가 상대방의 기량과 전략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한 마디 하듯이 관리인의 성공을 마지못해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단어가 이 이야기의 주제어이므로 이 단어의 의미를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 말로는 깊은 생각을 지니고 행동한다는 뜻인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마 67:24). 또한 미래를 대비하여 여분의 등잔 기름을 가져온 다섯 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7:24).

이것이 바로 부정직한 관리인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는 앞날을 위하여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처한 환경과 잘 맞았습니다. 그는 그 때 뿐만 아니라 앞날에 눈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영리함과 판단력

으로 행동한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헛갈립니다. 비록 지혜로운 관리인이 영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살자면 보여주어야 하는 자질을 분명하지는 않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주님의 계속되는 말씀으로 부연 설명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제자의 길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친구를 사귀라 !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이 세상의 부요함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 16:8-13)

지혜로운 제자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돈을 씁니다.

누가복음 16:8-13에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돈에 대한 지혜로움으로 영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원래 뜻을 약화시킨 것이며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란 매우 흥미 있는 단어로서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포함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재물이 막강한 힘을 지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하게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놓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고 악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그저 단순하게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요함의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9절의 “그리하면 없어질 때”는 사실은 “최약해질 때” 즉 죽음을 의미하지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딤후전 6:7)”

지혜는 돈이 힘은 있지만 그 힘은 유한하고, 임시로, 잠시만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합니다. 돈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카톨릭 성자 버나드는 “공기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빵을 공급할 수 없는 것처럼 돈이 마음의 굶주림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누구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돈에 대한 지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수의 친구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믿음의 동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고, 복음 전파에 사용될 때 우리는 영원한 결말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있는 믿음의 동요들에게 우리가 사용한 돈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켰음을 알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 때 살았고, 섬기던 곳을 방문하자 자신들의 인생에 당신이 끼친 영향에 대해 (당신은 짐작도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말하기 위해서 줄지어 선 사람들이 있을 때 얻는 만족 같은 경험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이러한 영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을 위하여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요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31개 교단에서 신도들의 가처분 소득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968년에서 1985년 사이에 31%가 증가했지만 그 증가액 중 단 2%만이 교회나 기타 기독교 단체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98%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쓰였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흥미진진한 기회의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또한 전략을 짜고, 계획하고, 꿈을 꾸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부정직한 관리인의 비유에서 묘사된 것처럼 급박한 시절에는 급진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평상시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제자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을 위하여 저의 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경솔하게, 감상적으로, 충동적으로 쓰거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족대 있고, 총명하고, 전향적인 기민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영원한 결말을 염두에 두고 돈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6:8-13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지혜로 영원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에 대한 지혜 속에 영원한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10-12). 그 지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주된 요구사항입니다 :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라.(고전 4:2)”. 두 번째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 16:10).”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작은 것 속의 신실함은 아주 큰 것이다.”

돈에 대한 지혜는 일차적으로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나폴레옹을 격파한 영국의 웰링턴 공작에 대한 전기를 썼고 계속 써내고 있는 현대의 전기 작가 한 사람이 이를 아주 예리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앞선 전기 작가들에 비해서 유리했습니다. 나는 공작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보여주는 오래된 장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근거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편지나 연설문보다는 장부가 훨씬 나왔습니다.” 웰링턴 공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 관해서 이는 더욱 더 옳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10절)”과 “불의의 재물(11절)”과 “남의 것(12절)”을 같은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큰 것(10절)”과 “참된 것(11절)”과 “너희의 것(12절)”을 같은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세상의 부요함이란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것은 우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현세의 소유물들을 마치 우리 것처럼 쓰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 우리는 부정직한 관리인과 똑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주인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이 지니는 일차적인 가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것” 즉 하늘나라의 일을 다루는 훈련을 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영원한 결말을 위

해서 쓰게 됩니다. 이로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봉사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특권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돈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16:8-3에서의 세 번째 메시지는 13절에 있습니다.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제자들은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돈에 예속되지 않게 해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돈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혹은 재물의 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이 것 밖에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제 3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이 대화를 생생하게 의인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을 소유하시거나 부요함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헨리 필딩은 말했습니다. “돈을 당신의 신으로 만들면 돈이 악마처럼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를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분제자란 없고 재물은 시간제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충성할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택할 때 그 분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그 분은 돈을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판돈을 걸고, 유흥비를 내고, 코카인 마약을 사는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돈으로 우리는 성경을 사고, 우물을 파고, 선교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리인이 자기의 황금 빛 미래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썼던 것과 같은 돈으로 지혜로운 제자는 영원한 우정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택한

주인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돈으로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의 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사용 할까요? 이것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자원으로 과단성 있게 행동한 이 이상한 “영웅”을 모방하면서 지혜로운 제자들이 할 질문들입니다.

외파로 떨어진 미지의 섬에 난파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그 섬에는 큰 부족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알고서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를 왕좌에 앉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뻐지만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대접을 할까? 점점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나면서 그는 1년에 한번씩 왕을 선출하는 것이 부족의 관습이고 임기가 끝나면 어떤 특별한 섬으로 보내져서 버려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부족 사람들을 다른 섬으로 보내어서 개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구를 마련하고 농작물을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을 골라서 거기에 살면서 그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좌에서 쫓겨날 시간이 되자 그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를 즐겁게 맞이할 친구로 가득 찬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제자들은 황량한 섬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준비한 것들이 거기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 곳에는 우리를 반기는 영원한 친구들과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바보들은 돈을 섬기고 뒤에 남겨두고 갑니다. 지혜로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에 투자합니다.



4. 불평하는 품꾼들의 비유

빌 보오든은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영국의 귀족 후예였고 그의 아버지는 시카고의 부동산과 콜로라도의 은광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빌은 스물 한 살이던 1908년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 돈은 지금 가치로는 4000만 달러입니다. 게다가 그는 잘 생겼고, 지성적이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2년 스물다섯 살 나이에 그는 두 가지 일을 하여 신문 머리기사에 올랐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재산을 절반은 미국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하여 배를 탔고 우선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웠으며 나중에는 중국의 오지까지 갔습니다.

대중이나 언론매체 뿐 아니라 심지어는 보오든의 크리스찬 친구들도 그의 행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헛된 일로 여겼으며 특히 그가 카이로에 도착하자마자 뇌척수막염으로 죽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돈과, 경력과 그의 생명까지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빌 보오든으로 하여금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을 사실상 모든 것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그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주 예수님을 섬깁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흥미 있는 토론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토론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기

한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영적인 동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도전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가 재현했듯이 그 토론은 주님과 부유한 청년의 만남 후에 벌어졌습니다 (마 19:16-26).

보상 약속 : 제자 된 축복

‘현대심리학’이라는 잡지 1981년 5월호에 실린 한 연구는 돈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의 결론 중 하나는 돈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런 사랑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상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돈의 힘을 슬프지만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비극은 그가 부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가 그 청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겠다고 하신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떠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를 신이 인간을 수용하고 인정한 징표로 종종 보았

던 사회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 19:24)”. 구원은 부나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고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드라마보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마19:21)”는 약속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하늘에서 보화가나를 좃으라” 라는 말씀이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에 모아졌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에게 저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에게도 그러할까?” 그는 분명히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좃았다. 그렇다면 나의 보화는 ?”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관심사를 불쑥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좃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19:27)”

베드로를 멸시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도로 자신을 속

이는 사람입니다. “내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다지 당연한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부글 부글 끓다가 더러는 표면으로 떠오르려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섬기면 보답을 받네. 매일 매일 주시네. 우리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시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보답이 아주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 기쁨 그리고 충만함이 아니라 피곤, 당혹, 패배감, 질병과 마주칩니다. “내 것은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해야 그 보화 중 일부를 얻을 수가 있을까?”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은 질책이 아니라 재확인이었습니다. 보답과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열망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서 보답에 대한 약속을 자주 펼치셨습니다 (마5:10-12:6:19-21; 10:41-42; 24:45-47; 25:20-23). 이 약속의 말씀들은 품위 없는 뇌물이 아니며 영업 전략도 아닙니다. 이 약속들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히 11:6)”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합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 19:28)”라고 하시며 천년 왕국에 대한 베드로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구약 전체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때 (단 7:13-22)”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사 65:17; 66:22)”입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모든 제자들이 갈망했던 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새 땅에서는 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누릴 것입니다 :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19:28)”. 열두 제자가 어떻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써 그들은 메시아를 오래 기다려 왔고 예수님이 약속의 그 사람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보답은 그들이 가졌던 소망 이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때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9:28의 약속은 열두 사도에게 하신 것으로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대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돌아 실 때 그분과 함께 한 후사인 (롬 8:17)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계 5:10).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고전 6:1-3). 저 자신이 이 말씀들이 지니는 속뜻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약속은 명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의 왕족이며 그분의 왕권과 광휘 안에서 우리의 “하늘나라 보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특권이 주어질까요? 주님은 그 보답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원한 특권을 낳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田土)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19:29).” 마가는 여기에다가 “금세(今世)에 있어 백배나 받되 (막 10:30)”라고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백 명의 아주머니들이나 이백 명의 형제들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물질적 이득을 보기 위한 공식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얻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성경 속의 부자 청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부자 청년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투자할 곳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몰랐다는데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려 하신 요점은 지금 뿐 아니라 영원히 있을 축복이 제자 되는 대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무엇을 잃든지 (실제로 잃게 됩니다. 우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직접 풍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보상을 받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꼭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많으니라 (마 19:30).”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승자처럼 보였고 승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그는 진정한 부에서 제외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승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 인생의 패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나중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생업을 떠나서 그들은 거부당한 지도자를 따르며 방랑자로 헤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빌 보오든처럼 그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예수와 나란히 천년 보좌에 앉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먼저 된 자였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답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 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너는 네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었기에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 대답이면 우리 모두에게 충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것들을 모두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축복과 보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질문에는 반드시 짚고 가야할 성가신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내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기독교인의 삶의 진수를 놓치게 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 뿐 아니라 우리에게 숨어 있는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서는 포도밭의 품꾼 비유로 (마 20:1-16)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밭의 품꾼 비유의 맨 마지막 절은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로 우리가 방금 논의한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과 긴밀히 연결 됩니다.

제자 되는 동기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0:1-16의 비유는 우리를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주님은 인생을 빈틈없이 관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므로 권위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노사관계, 구원 또는 보답에 관해서 우

리를 가르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가 그분을 섬기는데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사셨던 때에는 일용 노동은 흔히 있는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농경 사회에는 노조도 없었고 계약 직원도 없었습니다.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을 시장 내의 편리한 장소에 모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품삯이 정해지면 일을 하고 하루가 끝날 때 품꾼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한 삯을 받습니다 (레19:13, 신24:24-15).

이야기 자체는 간단합니다. 아침 여섯 시에 포도밭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갑니다. 그들은 정당한 임금에 합의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로는 그 품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바람직한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근로 조건에 합의했으며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땅 주인은 더 많은 품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굶은 날씨가 작물을 위협했거나 판매계약 때문에 수확이 즉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을 못 찾은 품꾼들을 보고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연유이든 간에 그는 오전 아홉 시에 장터에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싶지만 놀고 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간단히 제안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마20:4).” 단지 땅주인의 약속과 품성을 신뢰하게 되어 그들은 동의했고 합의 계약 없이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정이 정오에, 오후 세 시에, 오후 다섯 시에 반복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샅을 지불하되 한 시간 만 일한 사람들부터 지불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맨 나중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시간 일한 품꾼들은 하루 종일 일할 때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런 샅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하로는 살 수가 없었던바 주인은 그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관대하게 지불했던 것입니

다. 분명히 주인은 이익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사람들이 행운을 얻었다는 소식은 곧 뒷줄로 퍼져나갔고 열두 시간 일한 품꾼들은 큰 돈을 받게 되리라고 흥분하며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열두 데나리온이지!” 그들이 앞줄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마음속으로 보너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알았을 때의 억울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금액은 정확히 계약한 대로이었지만 (마 20:2) 공평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단지 한 시간만 일했고 우리는 땀벌에서 열두 시간을 채워서 일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것이 공평하다고 합니까?”

주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품삯이 정확히 계약한 대로이므로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오래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공평하게 아니라 관대하게 삯을 받았습니다.

땅주인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짐꾼

게 꾸짖으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은 제자로 섬길 때 의 세 가지 위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첫째는 계산적인 마음이 주는 위험입니다. 랍비에 관한 한 옛 이야기가 주님의 비유와 매우 비슷하지만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향의를 받은 주인이 대답을 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시간 동안에 당신이 하루 종일 한 일보다 더 많이 했소.”라는 대답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받은 품삯이 한 일 만큼이어야 공평합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은 향의하겠지만 우리는 한 일만큼 지불하라는 형평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경제학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샀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고용인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협상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그 분의 후한 베푸심에 압도될 것입니다.

둘째는 경쟁하는 마음이 주는 위험입니다. 열두 시간 일한 품꾼들은 한 시간 일한 품꾼들을 보고 자신들의 근로시간과 비교해 할 때 더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마 20:10)”.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품삯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기뻐했지만 다윗이 그 보다 더 칭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돌로 변했습니다 (삼상 18:1-16). 제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와 경쟁보다 더 부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는 불평하는 마음이 주는 위험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마20:11)”.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불평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관용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이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 (마 20:15)”.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의로움에 대해서 불평하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의 불평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투덜거림과 불평이었습니다. 불평은 우리와 우리 주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전염성 있는 사회의 병입니다. 상상속의 손실에 관심을 집중하고 제자로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애석해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관용을 놓치고 맙니다.

주님께서서는 품꾼의 비유를 마태복음 19:30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 20:16)” 그러나 여기서 대비시킨 것은 제자와 비제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여건이 영원한 보답의 열쇠는 아니라고 일깨웁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된 자”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저의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나중어야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목회를 할 기회가 저보다 적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삶의 여건 때문에 더 작은 보답을 받을 자격 밖에 없을까요? 아닙니

다.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에 보답을 하고 그분의 모든 일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1857년 12월 4일,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리빙스턴은 그의 삶을 이룬 동기를 말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음을 기뻐하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하는데 희생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빛진 것 중 작은 부분’을 그 분께 돌려 드리는 것을 도대체 희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분께 너무나 빛이 많아서 우리로서는 그 빛을 결코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만족을 주고, 우리의 능력을 최고로 일으키며,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기대를 주는 일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그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부릅시다.”

베드로 사도의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제자 되는 비용

을 헤아렸고 섬김의 특권을 고려하지 않고 보답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마19:27).

왜 주님을 섬기십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특권 때문입니까? 보답 때문입니까? 동기가 전적으로 순수할 수는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샅을 위해 일하는 고용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뻐하고 그분의 관용을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H · P																						
우편번호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구 분	① 신규 ② 주소변경 ③ 부수변경 ④ 재신청 ⑤ 취소			헌금입금은행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청 부 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45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 시리즈 26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인 쇄 : 2006년 6월 14일
발 행 : 2006년 6월 14일
감 수 : 김상복 강희숙
번역 편집 : 신영균
발행인 : 김상복
발행처 :
인 쇄 처 :